

2) 선암사의 중창불사¹⁾

선암사는 정유재란으로 초토화되었다. 철불(鐵佛), 보탑(寶塔), 부도(浮屠)와 청측(團廁), 조계문만 우뚝 서 있고 모두 불에 타버려 흔적조차 없다. 정유재란으로 불에 타버리기 이전의 선암사의 불전과 당우(堂宇)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법당의 동쪽 : 명부전(冥府殿), 약사전(藥師殿), 적연당(寂然堂), 명경당(明鏡堂), 대장전(大藏殿), 청운당(靑雲堂), 백운당(白雲堂), 배면당(背面堂), 독락당(獨樂堂)

법당의 서쪽 : 서방장(西方丈), 미타전(彌陀殿), 무집당(霧集堂), 영풍루(迎風樓), 천장루(天藏樓), 지장전(地藏殿), 문수전(文殊殿), 보현전(普賢殿), 용화당(龍華堂), 만월당(滿月堂), 반선각(伴仙閣), 제운료(際雲寮), 낙성료(落星寮), 서하당(栖霞堂), 성행당(省行堂), 탕자방(湯子房), 청측(뒷간)

법당의 정면 : 정문(正門), 종각(鐘閣), 대루(大樓), 조계문(曹溪門)

법당의 후면 : 첨성각(瞻星閣), 국사전(國師殿), 오십전(五十殿), 응진당(應眞堂), 팔상각(八相閣), 원통각(圓通閣), 능인전(能仁殿), 원명각(圓明閣), 성적당(惺寂堂), 진의각(眞疑閣), 계연당(谿然堂), 적조당(寂照堂), 심주각(尋珠閣), 완월당(玩月堂)

(20여 방암우는 법당 장내에 있지 않으므로 기록하지 않았다)

선암사에서는 전란으로 불에 타버린 불전·당우를 오랫동안 복구하지 못하였다. 1644년(인조 22) 5월 탄원선사(坦元禪師)가 대각암을 중창하였으며, 1652년(효종 2) 비로암을 중수하였다. 또한 1653년 5월 대괘불정화(大掛佛幀畫)를 조성하였다. 1660년(현종 1)에 산승 경잠(敬岑)·경준(敬俊)·문정(文正) 3대사가 뜻이 같은 10명과 함께 사찰 중수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미륵전 옛터에 대법전을 세우는 등 8년 동안 중창불사를 하여 사찰 면모를 일신하였다. 1681년(숙종 7) 봄에 언관(彦寬)·영민(英敏) 두 장로가 협력하여 대웅전 앞에 영성루를 건립하는 불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가을에 준공했다. 이때의 주지는 호암약휴(護岩若休)였다.²⁾

1698년 침굉(枕肱)의 문인 호암대사 약휴가 당우를 수리하는 등 선암사 4차 중창과 승풍(僧風)을 크게 진작하였다. 그는 같은 해 또 원통각을 세웠으며, 그 다음해 성상(관음상) 1구를 조성하였다. 1702년 53전단상을 조성하였으며, 1703년 대법당을 수리하였고 오십전을 중수하였다. 1707년 12월 승선교를 처음 축조했다. 이 석교는 초창 화주 호암약휴, 별좌 회원(會元), 편수(片手) 태소(太素), 감역(監役) 가아(可阿)·가초(可超), 삼강(三綱) 흥의(興義)·세태(勢太)·임선(任亘), 서기 돌동(突仝), 주지 단련화상(丹蓮和尚)이었으며 명경교식(明鏡橋式) 가교(架橋)의 공법이였다.

호암약휴는 제4차 중창불사의 마무리로 1707년 채팽윤(蔡彭胤) 찬(撰), 이진휴(李震休) 서(書)의 「조계산선암사중수비」를 건립하였다. 호암당의 제4차 중창불사 이후 선암사의 규모는 법당 8위(位), 전사(殿舍) 12, 중료(中寮) 16, 산암(山庵) 13, 속암(屬庵)으로 용안산 선적암, 운동산 도선암 등이었다. 이당시의 주지는 단련화상이었으며, 승려는 350명이였다. 호암당의

1) 李啓杓, 「仙巖寺 沿革」, 『仙巖寺』,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2, 27~30쪽.

2) 無用秀演, 「조계산 선암사 迎聖樓記」, 『한국불교전서』9, 358쪽.

수 년간의 불사에는 2국사·3화상·1침핑의 암조(暗助)가 있었다고 전한다. 또한 호암당은 문란해진 승풍을 바로잡기 위해 도내 규정소(糾正所)를 설치하여 자신이 도승통에 취임하여 승풍을 진작하였다고 한다.

1712년 수해를 만나 석교에 피해가 있었다. 그 다음해 승선교를 중수하였다. 승선교 중수 때는 화주에 전일(典一), 주지에 규석(規釋), 편수에 박논립(朴論立), 야부(冶夫)에 박수전, 삼강에 경잠(敬岑)·윤해(允海)·흥찰(興察), 서기에 습원(習遠), 조역에 인계(忍戒), 감역에 칠탁(七卓), 서서(書書)에 전형(典·)이 맡았는데 같은 해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3월 승선교 중수를 마쳤다. 1719년 3월 일주문을 복구하였다. 그해 7월 8일에 상량하였는데, 상량문은 설찬(雪璨)이 지었으며 시주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칠탁(柒卓)이었으며 당시 대중은 389명이었다. 이때 주지를 맡은 칠탁은 1713년 승선교 중수시 감역을 맡았던 칠탁과 동일한 승려로 보인다.

1735년(영조 11) 5월 벽천화상(碧川和尚)이 대각암을 3창하였다. 그 다음해인 1736년 비로자나불(현재 응향각에 보관 중임)을 조성하였는데, 시주자는 김석만·김하서·오세관·김월만이었다. 또한 1753년 괘불(掛佛)을 조성하였는데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봉안하였다. 1754년 3월 15일 상월새봉(霜月璽筓)이 선암사에서 화엄강회를 개설하였는데, 1200여 명이나 모여들어 법회의 융성함이 근고에 없었다고 한다.³⁾

1759년 봄 선암사는 화재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상월새봉과 서악등한(西岳等鸞)이 제5차 중창불사를 그 다음해에 시작하였다. 상월·서악은 대법당·명부전·오십전 등 40여 처의 불우·승료를 중수하였다. 제5차 중창불사 때의 화사는 상월·서악 등 32명과 동서양위역군(兩位役軍) 도수(都數) 551명이었다. 상월새봉은 중창불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칠간정문(七間庭門)에서 화엄대법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1,000여 법도를 훈화하여 청허문풍(淸虛門風)을 크게 진작시켰다.⁴⁾ 또한 산강수약(山強水弱)한 선암사의 지세형국으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 불전·당우가 불에 타자 상월새봉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1761년 선암사가 자리잡고 있는 산명을 청량산으로 복칭하고 사명을 해천사로 개칭하였다.

1797년(정조 21) 봄 해봉당 전령(展翎)이 화주가 되어 칠전(七殿)을 신건(新建)하여 그 다음해 1798년 여름에 완공을 하였다. 칠전은 선객(禪客)이 함께 정업(淨業)을 수행하기 위해 놀암식활(訥庵識活)이 12절목을 정하였는데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십이조례

- 一. 無懺悔不參禪堂
- 二. 除三更外不許睡眠
- 三. 白衣無行人不昇座
- 四. 諸山過客不得洗畚
- 五. 遊山僧俗不得留宿
- 六. 無鉢盂者不得同居
- 七. 無緣故者莫入他房
- 八. 放飲酒者永爲洗斥
- 九. 衣籠擔來者不得入

3) 有一, 『蓮潭大師林下錄』3, 『한국불교전서』10, 253쪽.

4) 『梅珠錄』.

- 十. 高聲大語者不禁自退
- 十一. 聚頭喧譁者不得相禦
- 十二. 沙彌少者不得率來

눌암식활이 제정한 십이조례는 칠전에 들어가서 참선 수행하는 납자들의 선원청규(禪院淸規)로 이해된다. 이 12절목을 벽에 걸어두고 오래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어 당시의 선방(禪房)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칠전의 건립에는 화주로 해봉대선사 전령, 성조도감(成造都監)에 가선대부 출인(出仁), 별좌에 대선사 성오(性昨), 시주지는 통정대부 내은(乃銀)이 맡았다.

1819년(순조 19) 대선루(대각암 내)를 중수하였다. 1823년 3월 30일 화재로 대웅전·명부전·정문루·향로전 등 불우 4동과 승당·선당 등 승료 6동이 불에 타버렸다. 이에 1824년 해봉·눌암·익종 3대사가 제6차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대웅전·명부전·정문루·향로전 등 4동을 중건하였으며, 1825년 3월 10일 승당·선당을 중건하였다. 이 시기 중창불사의 화주로 해봉당대선사 천유(天有), 성암당대선사 곽릉(廓陵), 인담당대선사 녹언(祿彦), 와운당대선사 근홍(謹洪), 물암당대선사 민현(敏玄), 경암당대선사 팽찬(彭贊), 계봉당대선사 심정(心淨)이었으며 행주지(行住持)는 율성(律性)이었다. 제6차 중창불사로 옛 모습을 되찾아 산명을 조계, 사명을 선암사로 복칭하였다.

1828년 제6차 중창불사의 마무리 작업으로 용암혜언(龍岩慧彦) 근식(謹識)의 「순천부 선암사제육창기」(대웅전 내 현판)가 작성되었는데, 여기에서 철우옹(鐵牛翁)의 「운림필기(雲林筆記)」를 인용하여 선암사의 아도화상창건설(阿度和尙創建說)과 청량산 해천사로의 개기(開基)창사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조선 후기의 선암사는 다른 큰 사찰과 마찬가지로 총섭(摠攝)체제로 운영되었다. 총섭체제는 총섭을 우두머리로 하여 그 아래 불감·목(도)감·유나(維那)·지전(持殿) 등의 직임을 설치하여 사찰을 운영하는 것이다.